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7.(목) 11:00 < 3.7.(목) 석간 > 배포 2023. 3. 6.(수)

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현장점검

- 원전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전 최우선 원칙과 계속운전 등 정상추진 강조
- '원전은 곧 민생'임을 강조하며 현장 직원에게 각별한 사명감 주문

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2.22.(목)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.23.(금) 원전 핵심기술기업을 방문한데 이어, 3.7.(목)에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본부를 방문하여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계속운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.

안덕근 장관은 고리본부의 설비현황과 계속운전 등 중요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고리 2호기 주제어실과 터빈룸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.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"원전의 안정적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강조하며, "특별히 계속운전 규제심사 준비와 설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"을 주문하였다.

이어 안 장관은 고리본부 구내식당에서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이들을 격려하였다. 이 자리에 참석한 고리본부 근무자들은 원전에서 근무하며 갖게 된 다양한 소회와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였으며, 안 장관은 "원전은 곧 민생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므로,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"임을 약속하였다.

한편, 안 장관이 방문한 고리본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(고리 1호기, '78.4월)한 원전본부로 총 6기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, 고리 1호기는 '17.6월 영구 정지하였고,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심사중('23.4월부터 정지상태), 고리 3·4, 신고리 1·2호기는 가동 중이다. 고리본부의 총 설비용량은 고리 1호기(0.587GW)를 제외하고 4.55GW 규모에 달한다.

담당 부서	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상민 (044-203-5320)
		담당자	사무관	유상열 (044-203-53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